

국내건설업체 해외공사 수주전략

건설수출 제2 도약기의 진입 예고

해외건설도 주요 수출상품



건설업체들이
날로 치열해가는 국내 경쟁에서
벗어나 시공 및 설계를 맡는 턴키 수주, 기획
제안형 사업, 해외부동산 개발형
사업 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건설수출의
차원을 한단계 높이고 있다.

■ 극동건설

71년 8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대만시장에 7백37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 진출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만에서만 1천6백23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한 극동건설은 해외건설 초기부터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 지금까지 수주누계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86년과 '91년에 각각 미국과 일본에 진출했는데, 최근 미국에 부동산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등을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22일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오피스빌딩인 말

레이시아의 칼라룸푸르시티센터 프로젝트중 92층짜리 빌딩을 삼성건설과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다.

■ 동부건설

해외시장 다변화, 영업능력 강화, 플랜트 분야 특화, 유망 분야 개발투자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만 진출해 모두 2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동부건설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개척 가능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해 일본·베트남·필리핀을 관심지역으로, 중국·

대만·러시아 등 동구지역을 정보수집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을 집중지역으로 했다.

■ 동아건설

그동안 중동 일변도의 수주 활동에서 탈피하여 미국·중국·호주 등지와 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동남아 지역의 신규시장개척을 추진하면서 자본참여를 전제로한 개발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아건설은 지금까지 수주 누계가 1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 공사에 착수한 미국 실리콘벨리 연구단지의 주택사업은 현지 업체인 우드선디벨로프사와 70%의 지분참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지사를 설치해 수주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아스팔트와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동아건설의 해외공사수주 추진방향은 시장다변화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림산업

지금까지 해외에 진출해 수주 누계가 76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해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찰·견적 능력을 강화시키고, 증장기 경영계획인 「대림 21」에 제시된 해외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을 개편, 종전의 해외공사부를 ①공사 ②토목 ③건축 ④기전 ⑤기술조사 등 5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

시장개방을 비롯한 해외시장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선진업체와의 기술 제휴, 현지 합작회사의 설립 등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며 장기 해외연수를 통한 인력양성에 힘쓸 방침이다.

그리고 종합건설업 체계를 이루어나기 위해 특화분야인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한편, 기술·금융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시공경험과 연고가 있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이 지역에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대우

기술상품과 기획제안형 사업

을 신국제화 전략으로 제시한 대우는 설계와 시공능력을 확충해 수요창출형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동안 투자형 사업의 형태로 후쿠오카 아시아 정보교역센터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비 5백40억円(원) 규모의 후쿠오카 쓰미요시 재개발 공사를 일본의 10개 건설 업체와 조인트벤처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미국내 첫사업인 티파니레이크 주택사업은 현지 주택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개발형사업이며, 지난 '92년에 공사를 수주한 말레이시아의 플라자 라키얏 종합터미널 건설공사는 모두 15만평에 공공운송터미널·사무실·호텔·백화점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맡은 기획제안형 사업이다.

최근에 국내 업체에서 처음으로 시공, 운영후 인도하는 BOT방식으로 수주한 라오스댐 공사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부지제공, 전기공급, 금융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5개국이 참여한 국제적인 분업형태로 추진된다.

■ 럭키개발

시공자 금융조건부 공사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 참여 목적으로 신규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럭키개발은

오는 2천년 해외수주목표 1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과 제휴,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벡텔사에 임직원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팜타워 콘도미니엄 공사현장을 현지화 정책 시범현장으로 정하고 장기연수를 실시중이다.

■ 벽산건설

'92년에 헝가리에 진출해 부다페스트 주헝가리 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 개보수 공사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체 현지공장과 바즈눅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한 벽산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신규수주의 확보와 함께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공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93년 8월 현지법인인 벽산아메리카를 통해 LA 산페드로 의류상가 공사를 착공했다.

벽산건설은 장기경영전략에 의거, 인도네시아·헝가리·미국·중국 등지로 해외사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개발형 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 삼성건설

최근 중국 진출업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해시의 내부 순환고속도로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삼성건설의 지금까지 수주 누계는 26억 달러로, 현재는 태국 방콕의 상징건물이 될 지상 63층 규모의 오피스텔 량산타워와 39층 규모 2천1백42가구의 핑크라오콘 공사 등 초고층 건물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다.

기존시장 외에도 베트남을 비롯한 북방지역에서 복합건물, 공업단지, 자원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난 '91년 모스크바 오르딩카 오피스텔, 군용 아파트 공사 등을 수주했다.

삼성건설은 해외사업전략으로 국가별 차별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초고층 건물 플랜트 공사 등 기술집약형 전략상품 위주의 수주를 추진하고, 본사 중심체제에서 현지법인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개선해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입, 핵심기술 및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삼환기업

'94년도를 해외부문 재도약의 해로 삼고 수주 목표를 3억 달러로 잡은 삼환기업은 라오스 차관도로공사, 방글라데시 올라파라도로 개보수 등 동남아 지역에서 3건의 공사에서 9천5백6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수주 누계는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태평양 연안국가에서의 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동남아와 중동지역에서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공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삼환기업은 지난 '7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1백75km 공사로 중동상륙 업계 1호의 기록을 갖고 있다.

■ 선경건설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건설 경험을 토대로 대형 플랜트 공

사의 턴키 수주에 주력할 계획인 선경건설의 '94년도 수주 목표는 3억 달러로, 수주 확대를 위해 해외영업부서를 2개 부서로 나누어 지역별 담당제로 개편했다.

미국·태국·사우디아라비아 등 3곳의 현지법인과 태국·인도네시아·멕시코·아랍에미리트연합 등 4곳의 지사를 계열화하는 동시에 해외구매부를 편입해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선경건설의 '93년도 수주액은 태국·인도네시아·멕시코·쿠웨이트 등 3개 지역에서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 쌍용건설

지난 '80년부터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건설은 자매회사인 쌍용정유의 원유정제시설 등 석유화학 시설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이란에서 하르그 원유저장 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그동안 쿠웨이트·요르단 등 중동지역 16개 공사를 수행하는 등 모두 19개국에 진출, 다양한 방식의 수주 활동을 전개해 지금까지 수주 누계가 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 초기의 단순 시공방식에서 턴키 및 패스트 트랙발주에 이르기까지 기술축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시장 진출 대상 우선 순위를 중국에 두고 있는데 시공 부문은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 경영 참여방식으로, 개발부문은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업체들과의 합작사업방식으로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6년에 개관된 싱가포르의 웨스틴스탬포드 호텔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8개 호텔과 미국의 3곳, 태평양 연안의 7곳의 호텔공사를 수행한 것을 계기로 호텔 신축과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주관, 개최한 「우수 시공사례 발표회」에서 공사관리 시스템화를 위해 표준 공정코드가 부여되고 하도급관리가 우수했던 '91년 7월에 준공된 「인도네시아 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사비가 1억2천1백만 달러인 인도네시아 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에서 쌍용건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예산편성—관리—보고—정산—준공 평가 등 체계적인 공사관리 시스템화를 이루었으며 관리 항목별로 분류표준공정 코드를 부여했으며, 하도급 관리에서는 자재수급, 공장제작, 인력동원, 현장설치, 공정 및 품질관리 제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해 하도급 공정지연에 의한 공사지연을 사전에 예방했다.

■ 유원건설

지난 '76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진출해 지금까지 15억 달러에 가까운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원건설은 지난 '90년부터 러시아·동남아·미주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3포인트」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동독지역 철수 구조련군을 위한 주택건설공사를 수주, 모스크바 인근에 지난 '93년 4월 2천3백 가구의 아파트 공사중 1차로 5백46 가구를 착공했다.

중국 시장 진출은 지난 10월에 북경 주택개발 건설집단과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의향서를 교환하고 빠르면 신년초 북경시에 3백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을 대상 지역으로 현지 법인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특화사업인 터널 암반굴착기(TBM)를 이용한 관개수로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 한일개발

해외공사에 국내 파견인력을 최소화하는 현지화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해외현장을 연결하는 컴퓨터공사 관리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며, 앞으로 단순도급방식을 탈피한 BOT방식의 공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BOT 방식은 국내의 종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무상 사용후 시설물을 해당 발주기관에 양도하는 민자유치사업과 비슷한 형

태이다.

한일개발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사가 내놓은 2천8백만 달러 증설공사와 광 대학교가 발주한 대학 건물 신증축공사를 2천1백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93년도에 개설한 자카르타 지사를 거점으로 서남아 지역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진 업체들과의 업무 제휴로 중국 등지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현대건설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66년 해외시장에 진출한 현대건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52곳의 현장을 비롯 지금까지 26개국에 진출, 해외공사 수주액 누계가 2백20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해외시장 확대란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금융기법 개발,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어 세계적인 건설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기로 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 '97년까지 해외기술정보에 관한 국제 정보망을 구축하고 산·학·관 기술협력체제를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협력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동반자 관계의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지역별 전략으로는 중동과 동남아 등 기존진출지역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유럽시장 진출을 모

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병단 산하업체인 해북원공정기술 중심과 국내 업체인 우남 엔지니어링 등 3자 합작 형태로 김해-현대건축공정유한공사를 설립, 지난 10월25일 남경시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주관, 개최한 「우수 시공사례 발표회」에서 직경 1천4백20mm 길이 30m의 광관파이프를 25m 간격으로 향타한 이후 철재 4각빔으로 하부 구조물인 교각을 완성한 후 육상에서 제작한 조립식 박스 지지대를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채택했던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채택했던 '93년 9월20일에 준공된 「이란 반다스 아바스 제철소 부두공사」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사비가 1억6천3백만 달러 규모로 이란 국영 제철회사가 발주했는데, 공사의 관건은 1.8Km에 달하는 교량건설로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1개 당 폭 4m, 높이 3m, 길이 25m, 중량 2백7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박스 지지대를 운반하는 것이었다.

현대건설은 당초 3천톤급 해상 크레인을 동원해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수심이 얕은데다 제작 장소와 설치 장소와의 작업 연결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영국에서 제작한 특수장비를 이용해 초중량물을 안전사고의 위험 부담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